

졸업가



쉬지 함 지난 께 앓 날 놀 고을 던 쌍생 보 은 각 금 정 하 자 이 면 리 오 꿈 떠 늘 속 나 날 에 간 에 도 들 열 꿈 멀 매 이 어 맺 었 지 어 네 며



영 저 동 광 회 고 스 들 동 런 은 락 졸 떠 곶 업 납 이 으 니 든 로 다 정 떠 길 헤 나 러 어 가 주 진 는 신 들 언 우 잇 니 리 으 들 모 교 리



자 인 문 육 자 화 자 하 민 육 신 족 성 스 꽃 공 승 동 으 님 산 로 과 에 삼 정 포 천 들 기 리 었 포 에 던 기 수 우 심 를 리 은 농 학 모 고 우 종



뒤 잇 봄 를 지 을 꽃 말 맛 는 고 아 동 돌 피 생 보 어 들 시 날 의 고 때 헛 길 우 불 이 리 이 안 금 되 념 성 읍 빔 빛 소 니 나 서 다 리